

# 광주·전남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국민권익위 평가... 2020년부터 광주 5→3→2, 전남 4→3→2로 등급 상승  
보성군, 기초단체 전남 유일 1등급...광주시, 광역단체 유일 '노력도' 1등급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때 전국 최악의 청렴도를 보였던 광주시는 청렴 노력도 평가 부문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모두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광역단체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종합청렴도는 청렴 체감도(60%·설문조사 결과)와 청렴 노력도(40%·정량 정성평가)를 평균 낸 뒤 부패 실태나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광주시의 청렴도 향상이 돋보인다. 광주시

는 2020년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뒤 2021년 3등급에 이어 2022년 2등급으로 올라서는 등 청렴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이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부패방지제도 구축,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기관장·고위직의 노력,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는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단독으로 1등급을 받았다.

전남도 역시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에서 2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외부 제감도, 내부 제감도, 청렴 노력도 등 모든 평가 지표에서 전년보다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청렴 으뜸 전남'의 청사진을 충실히 실천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들의 청렴도 평가는 엇갈렸다.

광주는 5개 자치구 가운데 남·동·북구 등 3곳이 2등급을 받았으며, 광산구는 3등급, 서구는 4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전남의 경우 시 단위 기초단체들은 모두 종합청렴도 3등급 이하에 머물렀다. 그나마 광양·목포·여수시는 3등급을, 순천시는 4등급을 기록했다. 나주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군 단위 기초단체에선 보성군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 곡성·담양·영광·장성·해남군은 2등급, 고흥·구례·신안·영암·완도·화순군은 3등급, 강진·무안·장흥·진도·함평군은 4등급이었다.

이 밖에도 광주시교육청 3등급, 전남도교육청 4등급, 전남경찰청 3등급, 광주경찰청 4등급 등을 기록했다. 국공립대들은 목포대·전남대(2등급), 광주과학기술원·목포해양대(3등급), 순천대(4등급) 순이었다. 전남대병원은 4등급에서 한 계단 상승해 3등급을 기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시의회 '추경 갈등' 봉합하나

지역 경제 위기 극복 한 뜻... 오늘 민생 안정 재정 운용 회의

지난 연말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립했던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에 뜻을 모으기로 해 갈등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27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광주 전략회의'를 열어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 전략회의는 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이 모여 지역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핵심 간부, 정무청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이 총출동하며 운영역 국회의원,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략회의 안건은 예산편성과 심의를 위한 대원칙, 안정적·적극적 재무관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 공동노력,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

성 등이다. 광주시 안팎에선 이번 전략회의를 놓고 증액 없는 추경 예산안 의결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초래한 시와 시의회의 '화해 무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사전 협의를 통해 안건, 쟁점 조율 등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난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와 불협화음이 나온 만큼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지극히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관행으로 굳어왔던 것들을 변화시키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심의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국체전 '세계 일류로' 전남 비전 제시

박명성 개폐회식 총감독 연출 방향 보고... 10월 13~19일 개최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의 주제가 '생명의 울림 속으로'로 확정됐다. 태고의 전남에서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의 모습을 미디어와 접목한 최첨단 무대 매커니즘을 활용해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것이다.

박명성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총감독은 26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보고회에서 연출 기본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보고회는 오는 2월 개최 예정인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회에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체전 준비 관계자 등에게 개·폐회식 연출 구성과 주제, 연출 방향 등을 사전 브리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감독은 "자연과 사람, 만물의 원천인 생명을 깨우고 지키고 이어감을 울림이라는 추상적 단어로 압축해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은 전 국민적 관심을 끄는 축제의 장으로, 체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개·폐회식을 통해 세계로 응징하는 일류 전남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를 향해 뛰는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수도 전남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 연출 대행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 참여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등을 통해 5월 초까지 대행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와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구 "만복을 기원합니다" 합동세배 26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광주 남구 합동세배행사가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남구청직원들과 어르신들이 만복을 기원하며 합동세배 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홀몸어르신 난방 점검

장성 삼계면 방문...애로사항 청취·전남도 지원대책 설명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예년보다 빠른 한파까지 겹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를 직접 찾아가 난방 실태와 가스·통신 등 안전 체계를 살피며 위로했다.

김 지사는 26일 장성 삼계면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이불 아래 손을 넣어 따뜻한지 체크하고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은 후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번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

기를 위해 홀로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5만 5600가구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가구당 20만원씩 총 111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9212개소에도 난방비 148억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여성농어업인에 행복바우처 지원

1인 20만원... 2월 28일까지 신청

전남도가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바우처를 지원한다.

2023년 1월 1일 현재 전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농어업인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전업적 직업(상근 직원으로 월정 급여액을 받는 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사업 시행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바라는 여

성 농어업인은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와 대상자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농협 시군지부와 각 지역농협을 통해 4월 초부터 발급된다. 연말까지 각종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유휴업소,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남도는 올해 9만5000명의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9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2022년부터는 본인 부담액 10%(1인당 2만원)를 전액 도비로 지원해 여성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모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